

편견을 넘어 진실로: 중동과 이슬람 다시 보기

엄익란, 『중동이슬람 문화여행』(한울아카데미, 2024)을 읽고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학부 중동이슬람전락 모듈

I.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이슬람과 중동은 종종 오해와 편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라는 이미지가 이슬람교와 중동의 진면목을 가려버렸고, 이런 선입견은 대중문화와 언론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처럼 깊게 자리 잡은 편견 속에서, 이슬람과 중동은 우리에게 낯설고 때로는 두려운 존재로 여겨진다. 엄익란 교수의 <중동이슬람 문화여행>은 이러한 편견의 벽을 허물고 이슬람 문명과 중동인의 삶 속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이 책은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말했듯이 중동과 이슬람 지역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과 학생들을 위한 교양서이자 학술서다. 그런 바람으로 책의 제목을 ‘중동 이슬람 문화여행’으로 정했다고 한다. 여행처럼 때로는 즐겁지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도전적인 내용이 이 책에 담겨있다. 이 책은 이슬람과 중동에 대한 정보를 나열한 단층적인 시선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시선 너머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탐구하고 학문적 통찰과 연구를 결합해 독자들에게 이슬람과 중동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자각하기 위해 그 근원인 오리엔탈리즘과 이슬람포비아를 설명하고, 그 사례로 이슬람에 대한 편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무슬림 여성과 히잡 문제, 그리고 테러와 극단주의의 뿌리가 되는 이슬람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2부에서는 이슬람교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면서, 수니와 시아 이슬람의 분리 과정, 이슬람의 교리가 예술과 문명에 끼친 영향, 이슬람과 관련한 상품이 인류사에 미친 영향 등을 중세와 근대를 중심으로 조망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무슬림의 일상생활 문화를 다루면서 중동인의 문화 코드와 관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슬람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종교의 관점이 아닌 문화 교류와 시장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이 돋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현상적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동과 이슬람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섬세하게 풀어낸다는 점이다. 저자는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부터, 중동인의 가족 문화와 현대 한류와의 연관성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주제를 친숙한 언어로 전달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독자들에게 편견을 넘어서 공감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선사한다. 과연 이 책은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독자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

II. 편견 뒤의 진실: 이슬람의 다층적 초상

현대 사회에서 이슬람은 종종 극단주의, 여성 억압, 비이성적 종교로 비춰지며 서구 중심적 담론 속에서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해 왔다. 엄익란 교수의 <중동이슬람 문화여행> 제1부는 이러한 편견의 기원을 탐구하고, 이를 해체하며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저자는 오리엔탈리즘, 이슬람포비아, 정치이슬람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을 통해 독자들이 직면한 선입견의 근원을 분석하고 있다.

책의 첫 장은 서구가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개념으로 시작된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저자는 서구가 중

동과 이슬람을 낫설고 이질적인 타자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동양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은 폭력적이고, 후진적이며, 위험한 종교로 묘사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로 이어졌다. 저자는 서구 중심적 담론이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설명하며, 테러리즘과 이슬람이 동일시되는 현실을 비판한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무슬림 전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었다고 지적한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를 편견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 문제를 중심으로 이슬람 사회의 젠더와 억압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서구에서는 베일이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간주되지만, 저자는 이를 단순히 억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페라고 주장한다. 베일은 종종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선택으로 작용하며, 많은 여성들에게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강요된 베일 착용 관습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찬반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장은 독자들에게 여성의 역할과 이슬람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 장은 이슬람이 정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이슬람(Political Islam)’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이슬람주의와 극단주의를 구분하며, 이슬람주의가 단순히 극단주의의 동의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치이슬람은 서구 식민주의에 대한 반발과 자신들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립하려는 노력에서 기원했지만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단체들의 부각으로 인해 이슬람주의를 부정적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특정 이슬람 단체들의 행동이 어떻게 이슬람 전체를 부정적으로 비추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정치이슬람의 다양한 형태와 그 뿌리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조명한다.

제1부에서 저자는 이슬람이 단일한 종교나 문화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가진 현상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해체하고, 다층적 초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III. 문명과 일상의 교차로에서

이슬람은 종교적 신앙 체계를 넘어,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문명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제2부는 이슬람의 태동부터 그 문화적 유산까지 폭넓게 조명하며, 이슬람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과 가치를 재조명한다. 독자는 이 장을 통해 이슬람 문명이 단지 종교적 차원을 넘어선,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게 된다.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도 무함마드에 의해 시작된 이슬람에 대해 저자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인간적 삶에 집중하며 그가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가, 그리고 사회 개혁가로서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를 설명한다. 당시 부족 간 분열과 불평등이 만연한 아라비아 사회에서 무함마드는 평등, 정의, 공동체 중심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창출했다. 특히 이슬람이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두면서도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저자는 무함마드의 생애를 간결하면서도 풍부하게 설명하며 독자들에게 이슬람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슬람은 단일한 신념 체계로 출발했으나, 무함마드의 사후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수니파(Sunni)와 시아파(Shia)로 분리되었다. 저자는 이 두 종파의 신념 차이와 역사적 갈등을 설명하며, 이슬람 세계가 단일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슬람 내부의 다양한 분파와 믿음 체계를 소개하며,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주제를 부각한다. 이는 이슬람이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주되는 복합적인 문명임을 드러낸다.

이슬람 문명은 단순한 종교적 영향력을 넘어,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화적, 과학적, 경제적 유산을 남겼다. 이슬람 문명은 중세 유럽의 암흑기 동안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과 학문을 보존하고 발전시켰다. 저자는 이슬람 세계의 상업 네트워크와 그 영향력을 강조한다. 실크로드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무슬림 상인의 활약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경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이슬람 건축의 정점인 아랍 양식 돔, 모스크, 문양은 세계 건축사에 독창성을 더했다. 저자는 이러한 유산들이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슬람 문명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명과 교차하며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역설한다.

저자는 제2부에서 이슬람이 단순한 종교를 넘어 문명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슬람 문명은 세계사의 흐름에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문명과 끊임없이 교차하며 발전해 왔다. 독자는 중동과 이슬람이 더 이상 이질적이고 낯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도 연결된 공유된 역사와 문화의 일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3부에서 저자는 중동인들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가치와 관습, 그리고 이슬람이 이들 삶에 스며드는 방식을 설명하며, 독자가 이슬람 세계를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중동에서 가족은 사회의 핵심 단위이며, 그 중요성은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중동인이 갖고 있는 가족 문화가 단순한 혈연적 관계를 넘어, 사회적 안정과 지지의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확대가족 개념이 강하게 유지되는 중동에서는 부모, 형제, 사촌 등이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결혼은 중동인의 삶에서 중요한 통과의례로, 전통적 관습과 현대적 변화가 공존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족 간 중매가 주를 이루지만, 점점 더 많은 젊은 세대가 본인의지에 따른 결혼을 선택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가족 중심 문화가 중동 사회의 안정성과 연대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서구적 개인주의와의 차이를 흥미롭게 비교한다.

중동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이슬람의 종교적 규범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루 다섯 번 기도와 라마단 기간 동안의 금식, 음식, 의복, 공공 예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슬람 규범에 대해 저자는 이러한 규범들이 어떻게 중동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설명하며, 독자가 단순히 이를 제약적으로 보기보다 풍부한 문화적 표현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중동지역의 사회적 관습은 외부인에게는 때로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이슬람적 가치와 전통적 문화가 결합된 산물이다. 현대문화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삶의 중요한 가치다. 저자는 이러한 문화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동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이슬람 문명을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

고 강조한다.

제3부는 독자들에게 ‘중동의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에 걸맞은 친근한 시선을 제공한다. 이슬람이 단순히 종교적 신념 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과 깊이 연결된 삶의 철학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독자는 중동과 이슬람을 단순한 문화적 타자가 아닌, 공감 가능한 다른 일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중동과 이슬람은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낯선 세계로 여겨지지만, 두 문화 사이의 교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엄익란 교수의 <중동이슬람 문화여행>은 한국과 이슬람의 연결 지점을 조명하며, 편견을 넘어 상호 이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저자는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관점에서 이슬람과 한국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저자는 한국과 이슬람 세계의 접촉이 신라시대의 실크로드 교역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물질적 교환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호작용의 기반이 되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20세기 초반 한국전쟁 당시 터키군의 참전으로 이슬람권과의 연결이 재조명되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이슬람 시장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무슬림 인구는 음식, 화장품, 관광 등 할랄 시장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시장에서 적극적인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제품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에서 점점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케이팝, 드라마, 영화 같은 한류의 확산은 이슬람권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상호 이해와 문화적 교류의 장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는 한류가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슬람포비아와 같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잘못된 정보와 미디어 보도로 인해 발생한다. 저자는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돕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무슬림과 한국 문화의 접점을 늘리는 등의 양국 간의 문화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4부는 한국과 이슬람의 관계를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연결 지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이 이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편견과 오해를 넘어선 실질적 교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한국과 이슬람이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엄익란 교수의 <중동이슬람 문화여행>은 학문적 깊이와 현장 경험이 결합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중동과 이슬람 세계를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다루지 않고, 직접 체험한 이야기와 생생한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편견 없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며, 이슬람의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맥락을 세밀히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지금까지 길들여졌던 ‘서구’라는 렌즈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관점에서 중동과 이슬람 세계를 다시 보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지난 1,000년 이상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생략되거나 축소된 이슬람 문명, 그러나 승자인 서구에 의해 쓰여지고 제도화된 역사 속에서 이슬람 문명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이슬람이 발원한 아랍과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영향을 미친 세계 역사, 정치, 경제, 문화를 탐구해 지금까지 서구 중심 세계관에 매몰된 인식을 바로잡고,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서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갖고 중동과 이슬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자의 절실함을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저자가 중동과 이슬람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현실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종종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부각되는 이슬람의 극단적 이미지를 비판하며, 대신 이슬람 문명이 가진 풍부한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성과를 드러낸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독자가 이슬람을 폭넓고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일부 내용에서는 특정 이슬람 국가나 지역에 대한 사례가 다소 치우친 느낌이 있다. 예를 들어, 중동의 가족 문화나 종교적 실천을 논하는 부분에서 특정 국가의 사례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이슬람 세계의 지역적 다양성이 충분히 드

러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 한계는 전체적으로 책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저자의 균형 잡힌 시각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는다.

<중동이슬람 문화여행>은 독자들에게 중동과 이슬람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길잡이다. 특히 한국 독자들에게 중동과 이슬람은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두려운 대상일 수 있지만, 이 책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감과 이해의 여정을 제공한다. 엄익란 교수는 독자들이 중동과 이슬람 문화를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일상과 관습, 그리고 종교적 믿음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 책은 또한 한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연결 지점을 모색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이슬람 문명이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와 미래의 세계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 공감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중동이슬람 문화여행>은 학문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대중 독자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서술 방식을 통해 독서의 폭을 넓혀준다.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원한다면, 이 책은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